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i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산지서 강해

금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니

(스가랴 8:14-19)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인간처럼 환경이나 감정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것도, 복을 주시기로 뜻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멸망했을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누우치지 아니하였으나”(14절).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엘에서 온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허망한 신앙, 명목상의 신앙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을 하되 하나님을 찾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는 금식, 이런 진실 되지 못한 종교 신앙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15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고, 이것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빨리 성전 짓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셨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은혜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으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삶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16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행동지침을 주십니다.

우선은 언어생활에서 성실하고 가감 없는 확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많은 언론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자기들의 편리대로 혹은 생각대로 한 부분만을 부각하여 진실을 왜곡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행실에 있어 정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와 진실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은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와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모든 도덕의 근본입니다. 진실이 결여되면 사랑이 악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은 남을 속이는 거짓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덕성도 진실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화평은 진실의 열매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재판은 화평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사실주의에 입각한 진실한 재판은 질서와 평안을 유지시킵니다.



이중운 목사(서울교회 담임)

성전 짓는 자들의 중요한 덕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1:47).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결여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와 의의니라”(17절).

진실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그 안에 감추어진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진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를 이루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전략적 정치를 하고, 백성을 불안하게 하며, 국가 파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는 진실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자, 불성실한 자, 위선자들이 때로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더라도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2.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19절).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 당한 사건을 기억하며,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며, 7월의 금식은 그달리아 총독의 피살 사건을 기억하며,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했던 것입니다. 이 금식일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국으로 귀환을 했고 해방이 되었으니 더 이상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성전 재건이 시작 되자마자 바로 시행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의식 가운데는 금식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금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보내라고 하셨으므로 신약에 와서는 금식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진실과 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성전 짓는 자들의 중요한 덕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1:47).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결여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마 5:9). 화평은 하나님의 자녀 된 증표입니다.

진실과 화평은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신약 시대의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진실과 화평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 사랑 · 교회 사랑

열린 바자에 내 몸을 드립시다

9월15일(수) - 17일(금) 3일간

서울교회는 이웃사랑의 섬김을 주장한다. 그 실천에 앞서 열린바자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9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3일간 교회 안팎과 한티공원에서 열린다.

특별히 이번 바자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열린 바자에 동참하여 2005년 11월 넷째 주 (교회설립14주년)에 새 예배당 헌당식을 위한 온 성도들의 정성을 모으는 일이다.

작은 봉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음을 현장체험해보자는 것이다. 열린 바자의 목표는 귀한 것,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꼭 사야 할 제품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양가 높은 음식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열린 바자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의 맘과 수고에 미리 감사드리며 열심히 봉사해주시리라 확신한다. 열린 바자는 성도들의 수고이고 이웃사랑의 잔치가 될 것이다.

부서별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다.

(바자개장시간)

9월 15일(수): 12:30 ~ 18:00

9월 16일(목): 10:00 ~ 19:00

9월 17일(금): 10:00 ~ 18:00

▶ 부서별 담당자

부서명	직책	실행위원
바자본부	대회장: 이종윤 위원장: 오정수 지도: 한상은	김세재
기획부	부장: 오광환 차장: 송인권	이강인, 차도훈
예배부	부장: 하인선 차장: 이동만	백수남, 윤성남, 손병석, 김성준, 양재인, 박순복, 예배안내위원
재정부	부장: 오형철 차장: 오승민	양춘경, 전광영, 홍일성, 김훈, 안인호, 강석우, 김정희, 이인선, 이인숙
판매관리부	부장: 장양일 차장: 최형열	조동완, 홍창배, 우지원, 정동호, 유을상
시설부	부장: 이승우 차장: 오유식	한길동, 김현영, 윤운식, 유근국, 차량관리부
섭외부	부장: 김규태 차장: 이양철	최규초, 우상태, 이종창, 박경우, 장덕
홍보부	부장: 최차순 차장: 김시환	서춘식, 유태서, 정인주, 신동기

▶ 바자 점포 담당

판매장	지도	점포장	영업부장	총무부장	실행위원
1점포	이규정 · 박두영	최양진	임옥균	황정임	김광룡, 서경학
2점포	이규정 · 하영수	김영주	한충현	정유선	한충현
3점포	김은호 · 정병무	이찬호	이경구	김유경	이학주, 이경구
4점포	김은호 · 임훈규	조철기	김금준	박미혜	손태기
5점포	오정식 · 전기섭	김중근	이학병	남옥진	이종형, 이광열
6점포	오정식 · 노송성	최용걸	박정인	윤숙희	이태상, 허상한, 박정수, 김병용
7점포	이상득 · 박두호	이상호	신종건	진경옥	이태원
8점포	이상득 · 홍성주	조성엽	강낙훈	김정은	김중운, 정동학, 이동권, 유형석
9점포	이용식 · 윤봉준	이남성	유 신	박재숙	이제원, 김찬웅, 한종우, 권장철
10점포	이용식 · 이복규	류중관	김재근	한명순	권장환
11점포	한상은 · 양경태	양인수	오치열	유숙인	이영조
12점포	한상은 · 김광신	황정옥	최광성	위성남	김형택, 김인수, 이재운, 김대웅
13점포	윤영국 · 조정식	김복승	장두현	이순희, 김인숙	김은태
14점포	윤영국 · 신용식	이계홍	한광마	김진희	유기찬
특판점포	한상은 · 오정수	탁경준	정효자	박현영	박순복, 이미승
만나점포	지혜영 · 박경희	이경희	여영숙	이은옥	권사회 임역원

제 2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준비 시작되다 금주중 우편물 발송기로

제2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을 위한 준비가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준비위원회는 8월17일(화)봉사자들이 교회에 모여 그동안 본 세미나에 참석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순례자와 안내 팸플릿을 발송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25학기동안 성도들의 순종과 봉사로 준비되어 온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금번 26학기 과정도 성도들의

봉사의 손길로 준비될 예정이다.

안내, 차량, 식사, 서적판매 등 많은 봉사부서가 지원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금번 26학기 세미나에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무국으로 신청하고 봉사 위치를 배정받아야 한다.

26학기 목회자 세미나는 9월 6일(월) 개강하여 11월 8일(월)까지 10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마음에 원하는 자마다

9월 12일(주) I, II, III부 예배 시
건축헌금 및 작정헌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학 1:8)

우리교회는 교회 설립 14주년이 되는 2005년 11월 넷째 주를 예배당 헌당일로 작정하였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 회막을 지을 때 이를 위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들과 자원하는 자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차고 넘쳤다고 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원하는 자가 되어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건축 헌금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는 신생아로부터 고령에 이르기까지 이번 건축 헌금에 동참하는 성도의 이름을 모두 동판에 새겨 서울 교회사에 길이 남길 예정이다.

신임 지휘자 청빙

이영조 교수(43. 4. 17)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석사
- 독일 뮌헨국립음악대학 대학원 졸업(M.D.)
- 미국 시카고 아메리칸 콘서바토리 작곡학박사(D.M.A)

- 연세대학교 음대 작곡과 교수
- 시카고 아메리칸 콘서바토리 작곡과 교수
- Korean Symphony Orchestra 재단 이사장
- 한국 최우수 예술인 음악부분 수상
- 작곡 대상(한국 작곡가 협회)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고성진 교수(57. 11. 19)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미국 바이올라대학교 교회음악과 수학
- 이탈리아 피렌체 시립 아카데미 졸업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과 교수
- (현) 한서대학교 예술학부 음악과 교수

8.15 광복절 특집 기고

출애굽과 광복59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소명



고영신 집사
(1교구, 경향신문 수석논설위원)

혼돈의 시대다. 보편적 원칙과 합리적 기준이 무너지고 가치의 전도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는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직장을 잃은 '사오정',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태백'들이 길거리에 넘쳐난다. 그런데도 정치지도자들은 고단한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가르는 소모적인 정쟁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어느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의 70%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다. 전체 국민의 절대다수가 희망 없이 살아가는 현실, 자신감과 활력을 상실한 사회, 8·15 광복 59주년을 맞은 우리의 우울한 현주소다. 잘나가던 한국호가 왜 이렇게 되었나.

구약 성경의 출애굽사건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준다. 첫째는 국가지도자의 중요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에 걸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을 이끈 모세,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흥망이 판가름난다.

둘째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웠더라도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광야생활의 어려운 현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굶주림과 물 부족에 대한 불평 등 끝없이 불평을 하고 때로는 지도자에게 반항했다. 심지어 금송아

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40년간 사막과 광야를 떠돌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했다. 그러고도 애굽을 탈출한 20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과거 노예생활에 젖어 옛 습관을 그리워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만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심한 어리석음을 저지른 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시련은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민족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구한말 우매한 임금과 나라밖 흐름을 직시하지 못했던 집권층. 무엇보다 친일·친미·친러파, 수구파와 개혁파 등으로 사분 오열된 조정은 서구 열강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끝내 나라마저 송두리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도 기적같이 국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후 분단과 전쟁, 군부독재와 민주화 투쟁 등 슬한 굴곡을 겪으면서도 세계사의 변방에 불과했던 우리가 그 중심무대에 우뚝 서는 발전을 이룩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한 탓이다. 희망을 주기는커녕 과거사 들추기다 뭐다 해서 나라의 근본을 뿌리 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정치지도자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가슴을 졸여야 하는 형편이다. 지도자의 무능,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 그리고 극심한 노사분규에 넉더리가 난 기업인들이 투자욕을 잃고 너도나도 중국과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으니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제난이나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붕괴조짐이다. 흩어진 민심을 모으고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정치가 집권기반 확충을 위한 편 가르기와 한풀이식 과거청산으로 공동체의 해체에 앞장서는 꼴이다. 남북으로 나뉘고 동서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보수 대 진보, 개혁 대 반개혁, 친미 대 반미, 기독교 세력 대 반기독교 세력,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등 이념과 계층, 지역과 연령에 따라 갈가리 찢겨진 채 상대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한 사회가 외부의 압력으로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자살행위 때문에 망한다"고 지적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성을 그리워하며 망향가를 불렀던 유대인 포로들,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2000여 년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여호와와 거룩한 선민이라는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왔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민족은 그대로 주저앉느냐, 다시 일어서느냐의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 민족은 지금보다 열배, 백배나 더 힘든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만든 저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굴레를 훌훌 털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열정,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희망의 등불을 켜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광복 59주년을 맞은 우리 1천만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소명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시는 선하고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자.

8.15 광복절의 기도

이 민족을 살피소서...



오영숙 권사(12교구)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36년간의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 남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돌이켜 보건데 아직도 한반도는 역사적 고난 속에서 기쁨도 잠깐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으로 38선은 고정화 되었고 급기야 6.25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 까지도 치르므로 인한 슬픔과 아픔은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슬픔의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 만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을 넘어 한데 어울려 곳곳이 지키며 살아가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이 민족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모두가 진리와 신뢰를 갖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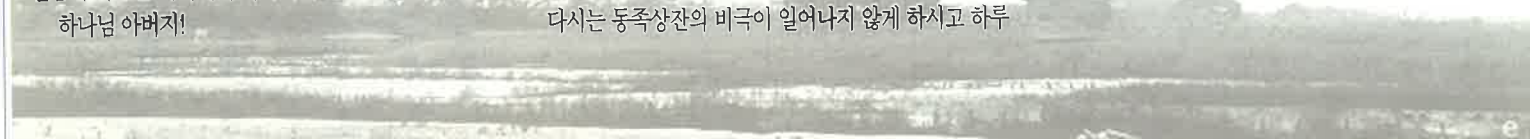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각 사람에 이르기 까지 사리 사욕과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애국 애족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루

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 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북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안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이 내리시기를 간구하옵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2004 4기 단기선교팀 보고(후편)

선교는 절제다!!!



최영렬집사(제4기단기선교팀 총무)

사라지곤지에서 다카로 돌아온 우리는 베들레헴 교회에서 유초어린이를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열었다. 홍수로 교회 마당에 물이 고여 있어 옆집 담을 넘어 들어가게 되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시원하게 말씀(막 2:1~12)을 선포해주신 윤영국목사님과 대학부의 찬양 울림과 손재영전도사님의 멋진 동작에 그들은 박수로 화답하는 뜨거운 전도활동이 이어졌다. 토요일 다카에서 릿사와 버스와의 배를 이용하여 2~3명이 한 팀이 되어 밀밭과 굴산에 있는 빈민탁아소를 찾아가 봉사하였는데, 버려진 아

이들을 돌보는 그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 아닌 바로 행동임을 체험하였다.

선교사역 중 주일예배는 한인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약 200여명이 모였다. 다른 선교팀이 두 팀이나 있어서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주일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스브로도바로이 목사님이 계신 에덴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였다. 정철웅선생님과 함께 의료사역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 분은 마침 멀리 방콕으로 치료차 가셨고, 우리들만 사역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크고도 놀라우시며 두려울 뿐이다. 우리는 정철웅선생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렸다.

화요일 오전에는 한국의 연세학당과 배제학당을 꿈꾸며, 방글라데시의 미래지도자를 키우는 Savor 지역의 '사랑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악기로 찬송가를 연주하며 우리를 맞이하는 40여명의 하이스쿨 학생들의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으며 이들이 속히 자라서 방글라데시의 큰 기둥들이 되어 주길 기도드리면서 공항으로 향하였다.

이번 4기 단기선교에서 『선교는 절제다』라는 사실을 배웠다. 풍요속의 절제가 아니요, 가난 속의 절제도 아니다. 할 수 있음에도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믿음의 절제인 것이다. 이슬람권에서의 선교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이므로 열매를 따기 보다는 오히려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씨를 정성스럽게 뿌릴 수 있도록 밭을 고르는 인내하고 절제하는 현장임을 체험하게 되었다.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제함』을 배운 선교였다.



만민에게 전도 - 2004 농촌전도대 보고

여우굴에 울려 퍼진 복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날. 중미산 골짜기를 흐르는 여우천을 따라 굽이굽이 외길 을 오르다 보면, 곧게 뻗은 붉은 적송과, 새까맣게 우짙는 배미소리를 만날 수 있다. 이마에 흐르는 땀 한번 훑치고, 단숨에 고개를 넘으면, 저기 보이는 여우굴의 파란 지붕들. 빨갛게 고추가 익어가는 텃밭에서 만난 여우굴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는 말에 순박한 웃음만 짓는다. 이 더운날 산골짜기 위 까지 힘들게 올라오셨다며 냉큼 텃밭마루를 내어주는, 고향의 인심이 살아있는 이곳이 우리 교회가 찾아간 분천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전체 주민의 30%가 불교신자이고, 20%의 주민은 잠정적으로 미신을 믿는 이곳 분천은 주님의 복음이 뿌리 내리기에 너무나 척박한 땅이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 한가운데 건설된 분천교와, 노인회관의 준공식이, 농촌봉사단의 일정과 겹쳐져, 마을 사람들의 대다수가 마을 잔치에 구경가 버리는 악조건 속에서 전도를 해야하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을주민들이 교회로 하나, 둘 모여들게 하시면서 나타났다.

이 · 미용봉사팀과 의료봉사단, 그리고 산 골짜기골짜기를

넘어 찾아간 가가호호 방문전도가 결실을 맺은 것. 결국 저녁 집회때에는 분천중앙교회 예배당이 마을 주민으로 가득 찬 가운데에 뜨거운 찬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또한 디아스포라부의 박광일 전도사님의 탈북간증은 마을 주민의 단한 마음을 두드렸다.

이번 농촌전도봉사단의 가장 특징은 사전에 마을주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중보기도와 전도봉사원의 비율증가, 효율적 구역배분등 전략적인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찬양을 들으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이곳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고 누런 황소의 구수한 울음소리가 있는 이곳 분천이 축복받은 곳을 느낄 수 있었다.

오주명(편집부)



단 신

막바지 여름더위가 한창이다. 매주일 교회의 각호실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는 음식을 섭취물 자체하고 쓰레기 를 책임있게 처리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동 정

- 이종윤목사는 16일(월) 기독교 TV(CTS) 직원 카페에서 설교한다.
- 이사: 3교구 이재광성도/한은숙 성도: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정리 용성 @107-101 TEL: 041-688-4622
4교구 김금준집사/이현주집사: 서초구 서초1동 1427-7한승메이트 나 302 TEL: 525-1759
- 교역자 휴가: 윤영국 목사 (16~21일) 대행: 김운호 목사
오정식 목사 (16~21일) 대행: 이용식 목사
- 주간 식당 봉사: 발림남선교회(8월 15일) 안드레 남선교회(8월 22일)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호산나넷 - (http://hosanna.tv)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을사경회 (9월 6일~10일)와 헌당을 위한 건축헌금을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26학기 목회자세미나와 성경대학 ·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